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봉사하는 교회

표어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

1. 영적부흥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2.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3. 21세기를 감당하는 일꾼을 키워내고,
4. 지역사회를 인도하고,
5. 세계선교에 헌신하는 데 있습니다.

월 행사 안내

12월 14일(주일)

공동의회

12월 16(화) - 19일(금)

청소년 코스타

12월 21일(주일)

성탄감사주일, 세례/입교식

12월 24일(수)

성탄축하의 밤

12월 25일(목)

성탄감사 예배

12월 28일(주일)

창립기념 감사주일

12월 31일(수)

송구영신 예배

담임목사 남 우 택 (Stephen W. T. NAM)

59 View Rd. Glenfield, Auckland, 442-1457

Hanouri Korean Presbyterian Church



주일예배

예 배 순 서

1부 8:00 2부 10:00 3부 12:00 4부 2:00 사회: 1부/이요한 2부/최영두 3부/안현수 4부/최동훈

- 예배부름 사 회 자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함 께
- 경배와찬양 이 땅 위에 오신 다 함 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 봉헌 및 1부/ 민봉식 장로 2부/ 신규식 장로 3부/ 정선채 권사 다 함 께
대표기도
- 성 경 눅 1:26-38 사 회 자
- 찬 양 2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시온찬양대
3부: 우리 할렐루야찬양대
- 말 씀 하나님의 구원이야기 2 남우택 목사
은혜가 임하다
- 찬 양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 드리세 다 함 께
내 평생 사는 동안
- 축 도 설 교 자

<4부 예배 순서>

- 경배와찬양 다 함 께
- 봉헌 및 김 수 경
대표기도
- 말 씀 행 9:3-9 주여, 누구시니이까 정지훈 목사
- 축 도 설 교 자

다음주 기도 1부/ 윤선미 권사 2부/ 조기동 장로 3부/ 김영현 장로 4부/ 김연수 청년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말씀: 요일 4:18-19

제목: 두려움을 포기한다

기도: 정민혁 집사 (다음 주 기도: 성탄 축하의 밤)

설교: 안현수 목사

교 회 소 식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교회알림

1. 한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모두에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예배당 내 음료수 반입과 예배 중
휴대폰 사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오늘 4부 예배는 정지훈 목사(Kosta강사,
우리들교회)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4. 오늘(14일) 공동의회가 1시 30분에
조이홀에서 있습니다.
5. 오는 21일(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6. 오는 21일(주일) 2부예배시(10시)
세례/입교 및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7. 2026년도 서리집사임명 동의서를
교회사무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현수 목사 021 0863 7987
8. 2026년도 비전 주니어 교사(정교사,
준교사, 보조교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정교사는 제자훈련
수료, 준교사는 교사대학, 성장반
수료자입니다.
문의: 이민수 집사 021 810 072
9. 재정부에서 알려 드립니다.
성탄절 온라인 헌금 code 는
12 Xmas 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탄축하의 밤

‘온 세상의 기쁨되신 예수’
눅 2:10

- 12월 24일(수) 저녁 7시
- 문의: 이정석 집사
021 868 075



청소년 KOSTA NZ

- 주제: Here I stand Holy Ground
내가 선 곳, 거룩한 땅. (출 3:5)
- 대상: Year 7 - 13
- 날짜: 12월 16(화) - 19일(금)
- 장소: CYC Ngaruawahia

교육부서

- 약속의 나라: 거리전도
12월 14일(주일) 11시 - 1시, 타카푸나
- 교회학교방학:
사랑부: 12.28 - 1.11
기쁨, 꿈, 약속: 12.28 - 1.4
비전 주니어, 시니어: 12.21 - 1.25

전도부

- 전교인 거리전도: 오후 3시에 브라운스베이
스타벅스 건너편에서 시작합니다.

월	일	목장/사역팀 거리전도 스케줄
12	14	파푸아뉴기니 / 월드 파키스탄
	21	엘림 / 과테말라 사랑
	28	태국사랑 / 월드 모로코

선교부: VANU12 2기 바누아투 단기선교팀 모집

- 대상: 한우리 전성도
- 일시: 7월 2일~7월 15일
- 미션: 산토 부족선교 성경캠프/ 부족마을 방문
- 준비모임 : 2월부터 매주 주일 오후
- 문의: 조배영 021 061 6569
이정석 021 868 075

교우동정

- 새가족

이름	가족	거주지
정원식 송진주	정이안	Saddleback Rise. Murrays Bay
김대훈 김은재	김해민	Takapuna
이성근 정혜윤	하영,하니 하엘	ToiToi Pl. Northcote
이주남	최현서	Eastcoast Rd. Sunnynook

• 소천

- 임기봉 성도께서 지난 1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우를 위한 진료와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 주께 감사드리세 -
의명과 뜻대로 - 주를 사랑합니다 -

날 위해 - 이땅에 오신 독생자 - 예수나

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사 감사 -

2026년 한우리교회 서리집사 임명동의서

본인은 한우리교회 교인이요 서리 집사로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며
주님의 몸 된 공동체를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 아 래 -

1. 25세 이상 70세 미만의 세례 교인
2. 교회공동체 사역에 한 가지 이상 봉사하는 자 또는 봉사하기로 결심한 분
3. 교회 사역을 위해 신앙의 기본인 주일 성수와 십일조를 드리는 분
4. 본교회 출석한 지 2년 이상 된 자로서 한우리반과 성장반을 수료하신 분
5.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역사회에 성도의 본을 보이는 분
6. 술, 담배, 도박을 하지 않는 자로서 사회의 덕을 세우는 분
7. 교회의 치리에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분

- 현재 섬기고 있는 사역 :
- 2026년도에 섬길 사역 :

* 서리집사 직분은 매년 별도의 재신청없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이 름 :
- 교회등록일 :
- 소속 목장 :
- 서 명 :



하나님의 구원이야기 2
은혜가 임하다 (눅 1:26-38)

하나님의 구원역사속에 흐르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내가 임할 때 내가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은혜”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라.
3.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함께 메시지 중심으로 나누어 보세요.
4.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5.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찾아오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p>영국</p>	<p>“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북아일랜드 종교교육, 대법원 “위법”... 교육과정 전면 개편 요구</p>
<p>북아일랜드 초등학교에서 ‘기독교가 절대적 진리’라는 전제로 구성된 종교교육(RE) 과정이 유럽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이 11월 19일 확정됐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27일 보도했다. 사건은 한 초등학생이 집에서 식사 전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부모가 학교의 기독교 중심 교육 방식이 특정 신앙을 절대적 진리로 제시한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부모는 북아일랜드 학교들이 유럽인권협약 의정서 1·2조가 보장하는 종교·철학적 신념 존중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p> <p>대법원이 종교교육과 집단예배를 구분하면서도 양쪽 모두 인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학교 예배 운영 방식에도 변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아일랜드의 무종교 비율은 2011년 10.1%에서 2021년 17.4%로 증가해 다원화 배경이 강화된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종교교육 방식 개편과 예배 구성 논의, 학부모 선택권 확대 등 구조적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p>	
<p>한국</p>	<p>“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고환율 직격탄 맞은 해외 선교... 생계·사역 이중고</p>
<p>최근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한 영향이다. 해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송금받는 후원금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면서 사역 운영비와 생활비 전반에 압박을 받고 있다. 사역비, 교육·구호비, 현지 교회 운영비 등 달러로 지출되는 비용은 그대로지만, 환전 시 확보되는 달러가 감소해 예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p> <p>이 같은 상황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교비를 달러로 책정하는 교회들도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본 이동, 국내 경제 불확실성,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통화량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원화 약세를 지속시키고 있어 단기간 내 환율 안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선교단체들은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사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후원 교회·기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출처: 데일리굿뉴스 종합).</p>	
<p style="text-align: center;">기 도 문</p> <p>사랑하는 하나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영국을 꾸짖어 주시고, 다음세대가 참된 진리 안에서 자라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 [한국]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간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보살펴 주시고,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복된 섬김이 되도록 채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 [교우를 위해] 건강과 재정, 관계와 신분 등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p>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p>	

